

범죄와 반사회성 성격장애

반신환 (한남대 기독교학과 부교수)

I. 들어가며

범죄를 정신장애로 취급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범죄가 발생하거나 용의자가 체포되면 용의자의 정신장애를 추정한다. 2007년 12월에 총기탈취용의자가 체포되었을 때 그의 정신장애를 추정하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서 다음과 같은 기사가 보도되었다.¹⁹⁾

조씨[용의자의 범죄 전후 행적이 드러나면서 그의 심리상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사 결과 조씨는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조씨의 범행을 놓고 우울증을 넘어 선 '사이코패스' 증상이 아닌가 하고 예상한다. 사이코패스는 연쇄살인범 유영철·정남규처럼 사람을 죽이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증상을 말한다.

일단 전문가들은 조씨의 행적, 미니홈페이지에 남긴 글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이코패스는 아니라고 본다. 잔인하게 초병을 살해하고도 편지에서는 이를 반성한 점, 치밀한 범행과 달리 허술하게 편지에 지문을 남긴 점 등 일련의 모순된 행동에서 '과대망상' 증세를 지적하기도 한다.

조씨의 부모나 이웃 주민·친구들은 평소 조씨를 “암전하고 착한 사람”으로 전하고 있다. 하지만 조씨는 자신의 미니홈페이지에서 스스로를 ‘다중인격자’, ‘정신지체장애자’로 표현할 만큼 정신적 혼란을 겪었다. 조씨의 미니홈페이지를 분석한 경기대 이수정(범죄심리학) 교수는 “잇따라 겪은 불행 탓인지 자의식이 강하고 인간관계를 회의적으로 여기고 있다.”면서도 “조씨가 보이는 우울함은 일반인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수준이어서 사이코패스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서울대 권석만(임상심리학) 교수도 “유영철·정남규의 사례에서처럼 사이코패스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으며 갖가지 범죄경력을 쌓아온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조씨는 평온하고 안정적인 유년시절을 보냈으며 전과기록도 없어 사이코패스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씨가 범행 뒤 보인 모순된 행동은 그의 성격을 쉽사리 추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상계백병원 이동우(정신과) 교수는 “저항하는 병사를 흥기로 잔인하게 찢러 살해한 뒤 편지를 통해 깊이 반성한 점은 상당히 모순된다.”면서 “성격 유형을 하나로 딱 잘라 표현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가톨릭대 박기환 교수는 “편지 대부분을 경찰처우 개선, 삼권분립 등 ‘대의 명분’을 세우는 데 할애한 것은 그가 자신의 불만을 외부에 투사하려 애쓰는 과대망상 혹은 편집증적 성격장애를 갖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고 분석했다.

19) 류지영, 김정은, “죄책감 없는 사이코패스 아니다” 「서울신문」 2007, 12, 14.

범죄는 정신장애의 증상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한다. 용의자가 치료를 받은 정신장애는 우울증이다. 그리고 전문가로부터 가능성을 인정받은 정신장애는 과대망상 혹은 편집증적 성격장애이다. 그러나 범죄와 관련되어 기사에서 관심을 받는 정신장애는 사이코패스(psychopath)다.

잔혹한 범죄의 용의자가 체포될 때마다 가장 초점의 대상이 되는 정신장애는 사이코패스 혹은 반사회성 성격장애다. 본고는 반사회성 성격장애에 대한 기사와 진단기준을 분석한다. 그리고 범죄를 정신장애의 진단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논의한다.

II. 신문보도에 나타난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특징

범죄인이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신문 기사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 기사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한다.

2004년 연쇄살인 용의자 유영철이 체포되었을 때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는 기사가 나타났다. 2003년 9월부터 약 1년 동안 20명을 연쇄 살인한 용의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사가 보도되었다.²⁰⁾

정신과 전문의들은 대부분 유영철이 심각한 정신질환의 일종인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 통계에 따르면, 성인 남자의 3%, 여자의 1% 정도가 갖고 있는 이 정신질환은 ‘초자아(超自我)나 ‘양심’이 형성되지 않아 남에게 피해를 주고도 죄책감이 없는 성격. ‘초자아란 자아로 하여금 원시적 욕구를 억제하고 도덕이나 양심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는 정신 요소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과 윤세창 교수는 “이들은 극도로 자기중심적이며, 의미 있는 대인관계를 형성할 능력이 없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좌절되면 극단적인 공격성을 보이는 게 특징”이라며 “진단체 보진 않았지만 성장과정에서의 애정결핍과 수감생활 등으로 인한 좌절감이 반사회성 인격장애의 원인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 정신과 김창윤 교수는 “유영철은 중1 때 아버지가 사망했고, 고등학교 때부터 수감생활을 했는데 인생에서 가장 민감함 시기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격리돼 생활한 것이 반사회성 인격장애의 원인이 된 것 같다”며 “그러나 청소년 시기에 애정결핍이나 좌절감을 경험했다고 모두 반사회성 인격장애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특징으로 제시하는 증상은, 자기중심성, 대인관계형성능력의 부족, 좌절에 대한 취약성 및 공격성이다.

2008년 2월 발생한 송례문 방화사건의 용의자가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

20) 임호준, “[희대의 살인마] “죄의식 못느끼는 인격장애 상태,” 「조선일보」 2004, 7, 19.

는 기사를 찾을 수 있다.²¹⁾ 이 기사는 2003년 대구 지하철참사 범인과 비교하면서,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10일 시너 한통과 라이터 한개로 600년 역사는 물론, 국민 자존심을 잣더미로 만든 채종기씨(70). 2003년 2월18일 한통의 휘발유와 라이터로 192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대구지하철참사 주범 김대한(당시 56세·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4년 사망). 이 두 사람이 5년 간격으로 표출한 사회적 불만은 돌이킬 수 없는 국가·사회적 손실을 불렀다.

승례문 방화용의자 채종기씨와 대구지하철 참사 주범 김대한은 여러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채씨와 김대한은 자신의 불만을 방화라는 범죄 형태로 표출했다. 채씨는 경찰 조사에서 "토지보상금 문제와 관련해 수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품고 방화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2001년 4월 뇌졸중으로 쓰러져 오른쪽 몸을 잘 쓰지 못하는 2급 지체장애인이었던 김대한은 "지병 치료를 받던 병원의 의사들이 제대로 돌봐주지 않아 병이 낫지 않았고, 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박탈감을 느껴 세상에 앙갚음을 하고 싶어 불을 냈다"고 진술했다.

전문가들은 범죄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두 사람 모두 불을 지름으로써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이를 일종의 보상이라고 느낀다고 진단했다.

곽호순 정신과 전문의(곽호순병원 원장)는 "채씨와 김대한은 개인적인 불만이 망상처럼 굳어졌고 원시적인 방법을 동원해 사회와 불특정다수를 향해 표출한, 전형적인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동준 계명대 교수(경찰행정학)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좌절공격가설'에 따르면 특정인이 추구하던 목표가 장애로 인해 달성되지 못하게 되면 좌절상황에 빠지게 되고, 그 장애의 원인이 외부요인이라면 방화, 폭력 등의 공격적인 형태로 나타낸다"며 "두 사람 모두 이 점에서 공통 분모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두 사람 모두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주변에다 여러 형태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사회가 이를 무시했다고 분석했다.

김대한의 경우 생계가 어렵고 지병 치료가 잘 되지 않자 병원과 피출소 등을 찾아 난동을 피우는 방법으로 사인을 줬다는 것. 채씨 역시 주거지 보상금 문제로 여러 차례에 걸쳐 민원과 소송을 제기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하자 방화 1년전에 '오죽하면 이런 일을 하겠는가'라는 제목의 편지를 써, 집안에 보관하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편지 안에는 토지보상금 문제와 사회에서 받은 냉대,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한 문제 등이 기록돼 있었다.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특징으로 제시하는 증상은, 불만의 망상화와 불특정 다수에게의 불만

21) 유선태, "승례문 방화—대구지하철 참사 닮은 꼴 두사람," 「국민일보」 2008, 2, 14.

표출이다.

2008년 3월 경기도 안양에서 초등학교 여학생 2명을 유괴 살해한 혐의로 39세의 남성이 구속되었을 때도 반사회성 성격장애라고 주장이 제기되었다.²²⁾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해진·우예슬양 살해사건은 '사이코패스(Psychopath,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의한 범죄라는 점에서 할 말을 잃게 만들어요. 심리학에서 사이코패스는 죄의식이 없고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며 자신의 불행을 타인·사회 탓으로 돌리는 '범죄형 인간'을 뜻합니다.

피의자 정모씨는 걸으론 인사성이 밝았다고 합니다. 이웃들도 "말 수가 적은 선량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10평도 안 되는 지하 셋방에 숨어 범죄와 일탈을 꿈꿨습니다. 밤마다 차를 빌려 대리운전을 하며 거리에서 희생양을 물색했어요. 성인 여성과 어린이 등 연령을 넘니들며 성폭행과 실인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정씨처럼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지닌 이들은 타인의 감정이나 그들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 반성하거나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자신의 일탈을 합리화하고 쾌락과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입니다. 정씨는 살해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교통사고를 냈다"거나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며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경우는, 그 행동의 결과로 처벌을 받게 됐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지 양심의 가책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들은 충동적이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합니다. 정씨의 경우 변변한 직업도 없이 대리운전이나 컴퓨터 수리공으로 지냈다고 해요.

사이코패스와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동일한 용어로 사용한다. 그리고 전문가의 진단도 없이 기자가 용의지를 반사회성 성격장애라고 주장한다. 범죄를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증상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위 기사에서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증상으로 제시하는 것은 죄의식의 결여, 공감의 결여, 불행의 사회적 귀인, 합리화, 충동성, 및 무계획성이다.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특징은 자기중심성 및 공감의 결여, 그리고 사회 혹은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다. 이와 같은 특징들은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증상으로 적합한가?

III. 반사회성 성격장애? 사이코패스?

반사회성 성격장애에 대해 미국정신의학협회의 공식적 진단기준이 존재한다. 이 기준에 의

22) 김태완, "죄의식·아픔 없는 '범죄형 인간'을 조심하라," 「조선일보」 2008, 3, 26.

해 진단이 이루어지고, 이 진단은 치료, 보험금 지급, 재판 등에서 최종 권위를 갖고 사용된다. 1994년에 출판된 「정신장애의 통계 및 진단 편람」(DSM) 4판에서 규정한 진단기준은 18세 이상으로 다음 7개의 증상 중에서 3개 이상을 15세 이후 갖고 있어야 한다.²³⁾ 그 증상은 사회 규범과의 마찰, 악의적 거짓말과 사기성, 충동성 혹은 무계획성, 성마름과 공격성,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에 대한 무모한 무관심, 연속되는 무책임성, 그리고 죄책감의 결여다. 그리고 15세 이전에 품행장애가 있어야 한다. 즉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부터 시작되어 성인까지 지속되는 타인의 권리에 대한 전반적 형태의 무시 혹은 배제가 핵심이다.

18세를 진단기준에 포함시킨 반사회성 성격장애가 임상적 진단명이 아니라 법률적 진단명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비행청소년으로 진단되던 청소년이 18세가 되면 갑자기 심리적 변화를 겪는다고 전제하고 성격장애로 진단이 바뀌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사이코패스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DSM-IV-TR에서 주장한다.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DSM 3판에서부터 사용된 용어이다. 1968년에 출판된 2판에 포함되어 있던 사이코패스의 개념을 수용하면서 용어만을 변화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두 개념은 동일한 것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범죄 혹은 공격행동에 초점을 둔다. DSM-III에서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진단기준을 설정하는데 핵심 인물은 로빈스(Robins)다. 그녀는 DSM-II에 포함된 사이코패스의 진단기준들이 연구와 임상에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진단 대부분의 타당성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녀는 구체적 기술과 경험적 자료에 근거해서 진단기준을 마련했다. 사회학자로서 비행청소년을 위한 아동교정병원에 입원했던 524명의 아동을 30년 동안 추적해서 연구했다.²⁴⁾ 그녀는 이 연구에서 죄책감, 누우침, 및 수치심의 결여도 진단기준에 포함시켰지만, 이 기준들은 신뢰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 결과 DSM-III에는 범죄행동에 초점을 둔 반사회성 성격장애가 수록되었다. 그리고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성격장애 중에서 유일하게 임상진단을 신뢰할 수 있는 장애가 되었다.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사이코패스 혹은 소시오패스(sociopath)를 동일하게 간주하지 않는 견해도 적지 않다. 특히 반사회성 성격장애가 사회이탈 행동에 초점을 두는 반면에 사이코패스는 사회심리적 유형에 초점을 두는 것에 주목한다.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진단기준으로 제시되는 7개의 증상 중에서 '죄책감의 결여'만 심리내적 특징이다. 나머지는 행동적 특징이다. 이처럼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진단기준에서 행동적 측면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사이코패스가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주장이 제기된다. 1941년 클레클리(Cleckley)가 주장한 사이코패스의 핵심적 특징은 정서적 위선(emotional insincerity) 및 자기중심성(egocentricity)이다.²⁵⁾ 그리고 이와 같은 심리적 특징에 초점을 두는 사이코패스의 개념을 고수하는 헤어

23)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649-650.

24) Lee N. Robins, *Deviant Children Grown Up* (Baltimore: Williams & Wilkins, 1966), 23-44.

25) Hervey Cleckley, *The Mask of Sanity* (St. Louis: Mosby, 1941), 27-59.

(Hare)는 공감의 결여(lack of empathy) 및 응대성(grandiosity)에 초점을 둔다.²⁶⁾

사이코패스를 진단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측정도구와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진단기준에 차이가 존재한다. 헤어가 자신의 사이코패스 개념을 근거로 개발한 PCL-R(Hare Psychopathy Checklist-Revised)과 DSM-IV-TR의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진단기준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 그것은 PCL-R의 20개 문항들이 두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요인은 타인을 냉담하게 죄책감이 없이 이기적으로 이용하는 정서 및 대인관계 양식이다. 이 요인을 결핍된 정서적 경험 요인과 교만과 기만의 대인관계 양식의 요인으로 세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둘째 요인은 사회적 이탈 행동으로 DSM-IV-TR 진단기준의 6개를 포함한다. 이 요인이 범죄에 포함되어 있다. 그 결과, PCL-R 점수가 높은 범죄자는 대부분 반사회성 성격장애 진단기준에 부합한다. 그러나 DSM-IV-TR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PCL-R 점수가 높지 않다.

IV. 범죄인? 정신장애인?

범죄를 성격장애로 이해하는 언론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범죄를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증상으로 이해하는 사과의 문제는 무엇인가?

언론기사는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사이코패스를 혼용하고 있다. 범법자를 단순히 범법행위자가 아니라 대인관계와 정서의 장애인으로 낙인을 찍는다. 성장배경을 언급하면서 자기중심성 및 공감의 결여라는 사회심리적 특징을 제시하는 것은 사이코패스를 의미한다.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성 성격장애보다 더 대인관계와 심리적 특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로 파악하면 행동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와 정서의 장애로 낙인을 찍는다. 단순히 범죄행동을 한 주체가 아니라 가정환경의 문제와 성격장애 때문에 정신장애를 갖고 있고 그것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객체로 전락한다. 가인의 낙인처럼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는 이미지가 형성된다.

범죄와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동일하게 생각하면 주체적 인간이라는 기본적 인간이해가 상실된다. 인간은 합리성과 의도성을 갖고 있는 주체이다. 우리는 생리적 혹은 심리적 충동과 필요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행동을 촉발하고 조절할 수 있다고 상정한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알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전제한다. 즉 합리성과 의도성을 갖고 법에 저촉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범법행동에 대해 책임을 감당한다. 그런데 범죄가 정신장애가 되면, 치료의 대상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관찰도 사법제도가 아니라 의료기관으로 바뀐다. 이것은 주체적 인간이라는 전제를 허물게 되고 현 사회제도를 공허하게 만든다.

계속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범죄행위자를 반사회성 성격장애인으로 이해하는 것은 법적 책

26) Robert D. Hare, *The Hare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Manual* (Toronto: Multi-Health Systems, 1991), 1-12.

임에 전제로 놓여있는 합리성에 대한 논란을 제기한다. 다른 정신장애는 합리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수용되고 있다. 우울증으로 자녀에게 상처를 입히면, 합리성이 제약되었기 때문에 감형될 수 있다. 그러나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합리성을 제약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될 수 없는 냉혈동물이리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더 공포의 대상이 되고 사회로부터 퇴출되어야하는 존재로 전락되고 있다.